순창군, 농촌유학 메카 우뚝

농촌유학생 75명 유치 '도내 1위' … 전년 대비 47% 증가·87억원 투입 인프라 확충

순창군이 2025년도 농촌유학생 모집에서 75명이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도내 최고의 농촌유학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순창군이 2025년도 농촌유학생 모집에서 75명이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도내 최고의 농촌유학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전년 대비 47%나 증가한 수치로, 38명의 신규 유학생과 37명의 연장 유학생으로 구성돼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특히, 기존 유학생들의 높은 재신청률은 순창군 농촌유학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다.

군은 농촌유학의 핵심인 주거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총 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개면에 걸쳐 28세대 규모의 신규 농촌유학시설을 조성 중이다.

이 중 2개면에 위치한 15세대는 2025년 2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어, 신학기부터 즉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군 유휴시설과 빈집을 적극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 효율성과 지역 재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혁신적 접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은 단순한 거주지 제공을 넘어 질 높은 교육 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기존 운영 중인 농촌유학 특화프로그램과 함께 총 1억 5천만원 규모의 교육특구 예산의 추가 지원도 이뤄져, 더욱 풍성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 콘텐츠 개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소통 강화,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등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촌유학은 단순한 인구 유입 정책을 넘어 지역 교육의 혁신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거환경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순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순창군의회, 예비군 육성지원 '우수'

육군참모총장상 수상

순창군과 순창군의회가 예비군 육성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영예로운 육군참모총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예비군 육성 지원에 크게 기여한 우수 기관과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군은 그동안 지역 예비군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16일 군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김광석 사단장, 최형배 대대장 등 군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순창군과 순창군의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강승구 건강장수과장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개인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순창군과 순창군의회가 보여준 예비군 지원체계 구축과 교육훈련 여건 개선, 예비군 작전지원 등 다방면에서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예비군 훈련장 시설 개선과 훈련 지원, 예비군 동원태세 확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석 사단장은 "순창군과 순창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는 지역 예비전력 강화의 모범사례"라며 "군과 지자체 상생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예비군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안보 자산"이라며 "이번 수상을 동력으로 삼아 예비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군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곤충산업 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남원시는 미래 신성장산업인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2개 사업, 총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투입해 곤충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낮춰 지속적인 영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곤충산업 분야 보조사업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곤충 사육농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팀)을 통해 신청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 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와 곤충업 신고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시는 접수 결과를 토대로 2월 초 대상자를 확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남원시청 축산과 곤충산업팀(620-6484)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는 올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한다

남원시보건소, 올해 도내 유일 지원 사업 추진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올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제1형 당뇨병은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으로, 주로 소아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해 매일 인슐린 주사 등 당뇨 관리기기를 통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남원시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해 사업을 남원시책으로 신설하고, 환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남원시에서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자로 2022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19세 미만 5명, 19세 이상 96명으로 총 101명이 이에 해당한다.

보건소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구입한 당뇨 관리기기 3종(인슐린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용 센서)의 본인부담금에서 19세 미만은 본인부담금 10%의 90%(최대 100만원 한도)를, 19세 이상은 본인부담금 30% 중 20%(최대 124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치매안심과 방문보건팀(620-7743)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2024년 4월에 마쳤으며, 취약계층 대상 건강돌봄 지원 신규사업으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6천6백만원을 편성하는 적극 행정을 펼친 바 있으며, 신규사업 대상자가 빠짐없이 시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내 병·의원과 교육청 등 방문 홍보 등 각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상자 등록 및 환자와 가족의 건강을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남원시보건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증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슬레이트 철거 대규모 프로젝트 착수

임실군이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15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405동(주택 320동, 창고·축사 등 비주택 30동, 지붕개량 55동)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 11억원에 비해 4억원 증가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축사) 소유자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일반 가구의 경우는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우선 지원 가구의 슬레이트 철거비는 전액 지원, 일반 지원 가구는 최대 700만원, 200㎡ 이하의 창고 및 축사 슬레이트 처리의 경우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 지원 가구는 1,000만원, 일반 지원 가구는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최대 지원 금액 초과 시 건축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2월 28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번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위탁업체가 직접 철거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개인이 철거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설 명절 맞아 청렴 남원 캠페인 전개

남원시는 지난 17일, 시청 현관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청렴 남원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남원시 청렴·반부패 정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금품·향응·편의 제공 금지 △근무기강 해이 점검 △음주운전 금지 등의 청렴 의식 함양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만들자 청렴한 남원, 함께하자 청렴한 남원 구호로 청렴 실천 의지를 보이고 청탁금지법 홍보지를 배부했다.

이하경 감사실장은 "청렴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시민들께 신뢰받는 청렴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동절기 상하수도 긴급상황 대기반 운영

임실군이 동절기 상하수도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휴일 상황 대기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 발생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상하수도과 휴일 상황실은 09시부터 18시까지 상시 2명이 근무하여 민원에 대응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실에서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상황실에 접수된 상하수도 관련 민원은 긴급 복구 대행업소와 협업하여 계량기 동파 및 상하수도 관로파손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긴급 복구를 위한 비상 자재를 상하수도 비상 자재 창고에 상시 구비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비상 자재를 분출하여 신속히 복구해 주민 불편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겨울철 동파 및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휴일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